

여론조사 시작...11일 컷오프 탈락 2명은 누구?

민주 대선 예비경선 일정 마무리 사흘간 여론조사 후보 6명 압축 후보들 선거인단 모집 주력 본경선 결선투표 성사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8일 오후 TV 토론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 됐다.

9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 11일 발표되면 상위 6명이 겨루는 본 경선이 개막한다. 예비 경선에 이어 본 경선에서도 지지율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반명 전선'을 이루는 추경 주자들 사이에 더욱 선명한 전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예비 경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재명 후보가 예상외로 고전한 반면, 이낙연 후보가 비이재명 연합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등 나름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예비 경선 토론 과정에서 선두 주자로서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기본소득 공약 논란과 스캔들 의혹 등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점수를 까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본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여론의 지지층을 집결시켜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선 흥행 차원에서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의 투표 결과를 3차례에 걸쳐 공개하는 '슈퍼워크' 제도를 초반 승기 확보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차 모집 선거인단은 가장 먼저 투표해 8월 15일 결과가 발표된다"며 "초반 대세는 1차 경선에 참여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했다.

반면 추경 주자들은 일단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면 결선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른바 '반명 연합'의 결선 단일화이다. 우선, 이낙연 후보 측은 예비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 비해 준비된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최근 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에 고무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를 통해 '반명 연합'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결선투표를 통해 대역전극을 연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예비 경선에서 불안한 후보(이재명)와 준비된 후보(이낙연)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최근 호남을 중심으로 이낙연 후보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본 경선에서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이후 화학적 결합을 강화해 본경선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후보 측에서는 본 경선에서의 단계적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관계자는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찍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한편, 단계적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본 경선에서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명한 개혁성을 표방하는 추미애 후보, 젊음과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는 박용진 후보 등도 컷오프 통과를 확인하며 본경선에서도 독자 노선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초반 기세를 기대만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꼽히는 김두관·양승조·최문순 후보도 전국적인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 등을 내세우며 본선 진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편, 각 후보들이 본 경선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조직 동원에 나서면서 이날 오전까지 선거인단은 약 36만명이 모집됐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모집되고 있어 과거보다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후보. /연합뉴스

대선 양자 대결, 이재명 43% vs 윤석열 33%...10%P 격차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

이낙연 대 윤석열 '36% 동률'

여야 유력 대권주자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포인트 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는 물음에 43%가 이 지사를 뽑았다. 윤 전 총장을 뽑는 답변은 33%였다. '없다'는 14%, '그 외 다른 사람' 4%, '모름·무응답' 6% 등이었다.

여권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선 경우에는 이 전 대표와 윤 전 대표가 36% 동률을 기록했다. 이 경우 '없다' 17%, '그 외 다른 사람' 4%, '모름·무응답' 6%였다. 전체 대선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전 총장 21%로 집계됐다. 두 주자 모두 1주 전과 같은 수치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1%포인트 오른 10%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4%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각 2%의 지지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였다. 진보진영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33%, 이낙연 14%, 정세균 추미애에 심상정 4%였다.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25%, 홍준표 10%, 유승민 9%, 안철수 7% 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가족을 향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당연한 검증'이라는 반응이 62%였고, '의혹제기를 통한 흡입내기'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선 지지율 여권 이재명 32.4%·야권 윤석열 33.2% '1위'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권 지지율에서 여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지사 39.9%, 이 전 대표 32.2%로 호각세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8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32.4%로 1위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19.4%로 2위였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7.6%), 정세균 전 국무총리(6.0%), 박용진 의원(5.0%), 최문순

강원지사(1.8%), 양승조 충남지사(1.4%), 김두관 의원(0.8%) 순이었다. '없다'는 22.8%, '잘 모름'은 3.0%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가 50.3%로 압도적 1위였다. 이 전 대표는 30.5%, 추 전 장관은 10.3%였다. 진보성향의 46.2%는 이 지사가 가장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꼽았고, 이 전 대표는 21.7%, 추 전 장관은 10.1%였다. 중도성향은 '이재명' 29.5%, '이낙연' 17.3%, '추미애' 8.0%였다. 남성 응답자 중 37.5%는 이 지사를, 13.5%는 이 전 대표를 각각 뽑아 편지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이 지사 27.4%, 이 전 대표 24.3%로 비슷했다. 이 지사는 40대(46.6%), 50대(39.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30대

(30.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야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2%로 1위를 지켰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2.9%로 2위였다. 그다음으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9.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6%, 최재형 전 감사원장 4.0%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2%, '없다'는 14.7%, '잘 모름'은 5.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이 58.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홍 의원 10.0%, 유 전 의원 6.0%, 최 전 원장 5.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내달 12~13일 광주서 'DJ 민주 인권 평화 포럼'

DJ 서거 12주기 맞아

18일까지 김대중 평화주간 행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다음 달 12~13일 제2회 'KDJ 민주 인권 평화 포럼'을 센터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특별 대담,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하는 3개 정규 세션이 진행된다. 민주 세션에서는 미안마 민주화를 기원하는 의미

로 '국가폭력, 5·18 민주화운동과 미안마'를 주제로 토론한다.

인권 세션은 '팬데믹 시대 인권의 의미와 쟁점', 평화 세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둘째 날에는 김대중 평화주간 선포식도 열린다.

김대중 평화주간 행사는 김 전 대통령 도교 납치 생환 일인 8월 13일부터 서거일인 18일까지 진행 된다.

포럼과 선포식을 비롯해 추모식, 추모 음악회 등이 광주시, 김대중 광주전남기념사업회,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